

김남훈 변호사

- 민법의 기초부터 심화된 내용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강의
 - 출제예상 판례에 대한 사실관계 및 확립된 법리까지 정리하는 강의
 - 초심자도 본 강의를 통하여 합격에 필요한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강의
 -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의 결론이 다른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
 - 민사소송법뿐만 아니라 민사재판실무, 요건사실론,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의 내용도 강의
 - 모든 쟁점을 1차와 2차를 동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강의
 - 오픈카톡채팅방(개강일 공지)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이 가능한 강의

* 1. 1(수) : 강의없음

* 1/7, 9, 13, 15, 17, 21, 23 : 오전 · 오후 연강 (오후강의 2시 ~ 5시 30분)

교재 Essential 민법(저자, 2020년 대비 전면개정판, 근간)

- ■ ■ 수강특전 (실강)
 - 실강수강생 특전
 - 1. “친족상속법” 동영상 강의+교재(Essential 민법 친족상속법편(저자,제4판) 무료제공
 - 2. Fouette 로스쿨 민법 핵심지문총정리(저자, 2019년판, 근간) 교재 무료제공

■■ 강의특징 I. 출제경향 및 일반적인 학습방법

법원행정고시의 출제자 및 채점자는 법관, 서기관, 사무관 등 사법시험과 법원행정고시를 합격한 실무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판례를 기반으로 하여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례형에서는 사법연수원 민사재판실무와 민사변호사실무의 사례문제와 모의기록에 기초한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집행법과 부동산등기법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이해가 되는 판례들까지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제경향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실무적으로 중요한 쟁점에 대한 최근의 판례를 이해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사법연수원에서 강의하는 쟁점 및 사법연수원 시험문제에서 출제된 판례에 대하여도 정리해야 합니다.

판례의 결론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판례의 확립된 법리를 이해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판례는 사실관계까지 정리해야 판례의 사실관계를 응용한 문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심화된 쟁점과 판례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과 부동산등기법까지 학습해야 합니다.

II. 민법의 구체적 학습방법

다음 중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으로 되는 권리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5년 법행기출]

- ① 채권자취소권
- ② 가압류·가처분 결정에 대한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
- ③ 제소기간의 도과에 의한 가압류·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
- ④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
- ⑤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1차 시험은 판례위주의 지문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위의 기출문제와 같이 민사집행법의 내용을 알아야 맞출 수 있는 문제까지 출제되고 있습니다. 1차 시험의 합격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위와 같은 문제도 맞출 수 있는 수준까지 학습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의 중요 법리를 학습해야 하고, 법원사무 직렬의 경우에도 부동산등기법의 중요내용을 학습해야 합니다.

■ ■ ■ 강의특징 특히 2019년 법원행정고시 제1차 객관식 시험은 기존과 달리, 복잡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는 문제들이 다수 출제되어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민법이 제1차 시험의 합격 여부를 좌우하는 과목인데, 올해는 그러한 경향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민법의 중요도에 비추어 이러한 경향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차 시험은 출제자들이 주로 판례의 사실관계를 변형하여 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차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판례는 사실관계까지 학습을 해야 합니다. 특히 민법 2차 시험에서는 부동산등기법과 민사집행법의 내용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판례까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법원사무 직렬의 경우에도 민법 교과서 수준을 넘는 범위까지 부동산등기법과 민사집행법의 중요 내용을 학습해야 합니다.

III. 민법강의의 진행방향

1. 기본개념의 정확한 이해

기본개념을 충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할 것입니다. 법학에 있어서 개념에 대한 이해는 공부의 시작이자 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 쟁점에 대한 통설적 입장에서 서술되고 있는 개념의 정확한 이해를 강의의 1차적 목표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민법을 처음 접하는 초심자도 본 강의를 통하여 합격에 필요한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강의할 것입니다.

2. 민법 조문과 판례의 정확한 이해

민법 학습의 기준은 항상 민법조문과 중요 쟁점에 대한 판례의 확립된 법리를 이해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민법조문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할 것입니다. 결국 학설과 판례는 민법조문을 어려운 내용으로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견해의 대립입니다. 그리고 사례문제의 시작과 끝은 민법조문입니다. 따라서 민법조문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하겠습니다.

판례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을 강의의 궁극적 목표로 하겠습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의 결론이 다른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할 것입니다.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수험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민사집행법과 부동산등기법의 내용까지 설명하여 체계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강의할 것입니다.

2차 시험에서 합격을 좌우하는 난이도 높은 문제들은 항상 이러한 과목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는 쟁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접 과목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민법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민사소송법뿐만 아니라 민사재판실무, 요건사실론,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의 내용도 강의할 것입니다.

■ 강의특징 3. 1차용 중요지문 및 2차용 키워드의 정리

1차와 2차를 동시에 대비해야 하는 법원행시의 특성상, 모든 쟁점을 1차와 2차를 동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강의할 것입니다. 중요한 쟁점을 강의하면서, 이러한 쟁점이 1차에는 ~한 식으로 출제될 것이고, 2차에는 ~한 식으로 출제될 것이라는 방식으로 강의할 것입니다. 2차 답안지에 반드시 현출해야 하는 키워드도 암기할 수 있도록 강의하여, 자연스럽게 2차 답안지를 작성하는 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4. Essential 민법(전면개정판 근간)의 구성

민법 조문을 일반적인 교과서 편제에 맞추어 모두 수록하였고,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실명법, 가동기담보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동산채권담보법 등의 부속법도 수험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조문과 관련하여 학습해야 하는 내용은 “☞”로 해당 부분에 기재하여, 조문을 읽으면서 동시에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요건사실론의 내용을 별도의 교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최신 판례까지 반영하여 모두 교재에 수록하였습니다. 사법연수원에서 출간한 ‘요건사실론’과,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출간한 ‘요건사실론’의 내용까지 전부 참조하여 교재에 반영하였습니다. 이 부분의 학습을 통하여 민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등기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부동산등기법의 내용을 별도의 교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상세하게 수록하였습니다. 물권법에서 중요한 판례의 법리를 이해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동산등기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차 선택형 문제와 2차 사례형 문제 중에서 각종 시험의 중요 기출문제를 해당 쟁점에 수록하였습니다. 학습한 내용이 실제 시험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지를 즉시 확인하여 효율적인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효율적인 강의수강의 방법

별도의 진도표는 없고, 매일 40페이지 정도를 강의할 것입니다. 복습 위주로 강의를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강의진도는 물권법(9회) → 채권총론(7회) → 채권각론(7회) → 민법총칙(7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실강생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Fouette 로스쿨 민법 핵심지문총정리”는 자습용 교재입니다. 복습시에 진도에 맞추어 학습하고, 개인별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별 구체적인 학습방법 및 개인상담은 개강 후 개별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픈카톡채팅방(개강일 공지)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카톡채팅방을 합격의 도구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김남훈 변호사를 믿고 수강하시는 분들의 최종합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법원행정고시에 합격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길을 안내하겠습니다.